

#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통’과 ‘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김설연

(성균관대학교)

**Jin, Xueyan. (2022). Research on Korean negative polarity items ‘tong’ and ‘yeong’: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4), 41-62.** This paper aims to research Negative Polarity Items ‘tong’ and ‘yeong’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nalysis is done from three aspects: previous research, dictionary, and corpus. First of all, previous research revealed that different researcher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Syntagmatic Relation between ‘tong’ and ‘yeong’. Besides, some problems occurred when vocabulary learning orders were set for Korean learners and no applicable scheme was put forwar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econd, the analysis of dictionaries shows that ‘tong’ and ‘yeong’ are synonyms, which explains why Korean learners may fi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Moreover the four dictionaries analyzed in this paper did not provide detailed word meanings, syntagmatic relation, and samples. Finally, actual usages of Korean native speakers are analyzed in an objective way and samples from a corpus are also explored. Generally speaking, ‘yeong’ is used more frequently, which indicates that native Korean speakers use ‘yeong’ more widely. Specifically speaking, ‘tong’ is often used in negative sentences while ‘yeong’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in its usage frequency in negative and positive sentences. This paper also shows that ‘tong’ and ‘yeong’ show a tendency of respective combination in sentences, which is explained in detail.

**주제어(Key Words):**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 유의어(synonym), 부사(adverb)

## 1. 머리말

이 연구는 그간 부사 부정격어 관련 연구 중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통'과 '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부정격어'란 연구자에 따라 그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안', '못', '없다', '않다' 등 부정소와 공기하여 정도를 약화하거나 극대화하는 어휘나 구로 보고 있다.<sup>1)</sup> 또한 부정격어는 정도를 약화하는 소극적 부정격어, 정도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부정격어로 나눌 수 있다(유옥순, 2004). 같은 등급에 속해 있는 일부 부사는 유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적극적 부정격어로는 '전혀, 도저히, 도무지, 통, 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의미상 비슷하여 일부 문장에서 교체할 수 있지만 결합 특성에 의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부정격어에 주목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쳐왔다. 하지만 '통'과 '영'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과 '영'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가 없고 주로 전반적인 부정격어를 논의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있다(이기중, 1989; 임유중, 2005; 구종남, 2011; 쥘리엔치, 2014 등). 이는 사용 빈도수 측면에서 다른 부정격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안 했을 수 있다.<sup>2)</sup> 하지만 '통'과 '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어휘 목록, 2017년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이하 <국제통용>)의 어휘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어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과 '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과 '영'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펼칠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통'과 '영'을 어떻게 논의하였는가?

둘째, 사전에서는 '통'과 '영'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셋째, 한국어 모어 화자는 '통'과 '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2. 연구사 검토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통'과 '영'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국어학의 관점에서 다른 논의 중에서 높은 업적을 보

1) 구종남(2003)에서는 부정격어를 형태에 따라 단어형과 구형으로 나누었다. 단어형으로는 '전혀, 아무리, 통, 여간' 등이 있고 구형으로는 '한순간도, 손톱만큼도, 다시는' 등이 있다고 하였다.

2) 2005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의하면 '전혀, 도저히, 도무지, 영, 통'이 각 403위, 984위, 1,050위, 1,111위, 1,143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통'과 '영'은 다른 부사 부정격어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준 이기중(1989), 임유중(2005), 구종남(2011)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기중(1989)에서는 '통'과 '영'은 모두 '안, 못, 없다, 말다'인 부정소와 호응을 할 수 있지만 '아니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용례를 제시한 바 있다.

- (1) a. 떠나간 뒤로 그는 [영, 통] 소식이 없다.  
 b. 그놈의 꿈꿨이속을 [영, 통] 알 수가 있어야지요.
- (2) a. 그를 오랫동안 [\*영, 통] 보지 못했어.  
 b. 이제 우리 팀이 우승하기에는 [영, ??통] 글른 것 같다.<sup>3)</sup>

우리는 이상의 기술에 대해 아래처럼 세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과 '영'은 '안, 못, 없다, 말다'와 모두 호응할 수 있을까?

둘째, '통'과 '영'은 '아니다'와 호응할 수 없을까?

셋째, 예문 (1a)의 '통'과 '영'은 유의 관계를 이룰까?

먼저 첫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은 용례 (1)과 (2)에서는 부정소 '없다', '못'과 호응하는 문장만을 제시하였고 '안'과 '말다'에 대해서는 용례를 제시하거나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2a)처럼 비록 '-지 못하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제시하였지만 '통'이 가능한 경우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영'과 호응이 가능한지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두 번째 의문이 생긴 것은 이 연구에서 '아니다'와 공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영 말이 아니다', '영 내 취향이 아니다'와 같은 발화를 하므로 일단 직관적으로 완전히 공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sup>4)</sup> 세 번째 의문이 생긴 이유는 부사 '영'은 '전혀, 도저히'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한자어 '永'에서 유래해 '영영'의 준말로 '영원히'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데 (1a)의 '영'은 '영원히'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첫 번째 의문과 두 번째 의문의 해답은 임유중(2005, p. 245)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 이기중(1989)에서는 '그르다'는 '통'과 '영'에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영'과 더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4) '통'과 '영'이 '아니다'와 공기할 수 있는지는 4장에서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 없다: A. -가 없다, B. -르 수가 없다, C. -르 것이 없다  
 아니다: A. -가 아니다, B. -르 [기분/상황]이 아니다.  
 모르다: A. -를 모르다, B. -르 줄 모르다.  
 싫다: A. -가 싫다, B. -기가 싫다  
 어렵다: A. -가 어렵다, B. -기가 어렵다

표 1. 임유중(2005)에서 제시한 변별 정보<sup>5)</sup>

구분	안	못	말	없다			아니다		모르다		다르다	싫다		어렵다		비, 불, 무
				A	B	C	A	B	A	B		A	B	A	B	
통	○	○	×	○	○	○	×	○	○	○	×	×	○	×	×	×
영	○	○	×	○	○	○	○	○	○	○	○	○	○	○	○	○

'표 1'에서 본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통'과 '영'은 모두 '말다'와 공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 (3) a. 절대로 먹지 말아라.  
 b. \*통 먹지 말아라.  
 c. \*차마 먹지 말아라.

(3)처럼 '절대로'는 '말다'와 잘 어울리지만 '통'과 '차마'는 어울리지 못한다. 비록 '영'에 관한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말다'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임유중, 2005, p. 247).

또한 '영'은 '말다' 외에 다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지만 '통'은 '말다', '-이/가 아니다', '다르다', '-이/가 싫다', '-이/가 어렵다', '-기(가) 어렵다'와 공기할 수 없어 비교적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종남(2011, p. 565~566)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로 '-기(가) 어렵다'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4) a. 문제가 \*통 어려워요.  
 b. 요즘 통 그를 보기 어렵다.

(4)에서 보았듯이 '통'은 '어렵다'와 직접 공기할 수 없지만 '-기 어렵다'로 변형시키면 공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기 어렵다' 외에 '-기 힘들다'를 사용하여 '요즘 통 그를 보기 힘들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용례 '그 애가 통 제 말을 들어야지요.'를 제시한 것인데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렇게 발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은 수사어문에서 사용이 자연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다.<sup>6)</sup>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통'과 '영'의 결합 특성에 대해 관점이 다른데 이는 주관적 판단

6) '통'이 수사어문에서의 실현 양상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익명의 심사자께서 '-어야지'가 들어간 문장은 수사어문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셨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 관점을 동의한다. 하지만 수사어문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구종남(2011)처럼 편의상 수사어문으로 칭하기로 하겠다.

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미 및 결합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유중(2007)에서는 문어 말뭉치의 용례를 바탕으로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빈도 및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문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분리형 교재인 읽기와 쓰기 교재의 어휘 제시 순서를 밝혔다. 그중 '통'과 '영'은 3단계로 간주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교재에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다음으로 교육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였는데 빈도가 높은 어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어휘를 가르칠 때도 제약이 가장 적은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어휘의 난이도, 한국의 문화 관련 어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빈도만으로 학습 순서를 제시한 것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반론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는 빈도만을 고려해도 충분하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어휘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기타의 것을 감안하더라도 난이도를 빈도수처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학습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원아(2012)에서는 부정소와 호응하는 부사를 '부정성 부사'로 칭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부정성 부사를 위계화하였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빈도, 의미 분명성, 호응 범위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총 5등급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그중 '영'과 '통'은 2등급으로 간주하고 중급 단계에서 학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7년 <국제통용>의 어휘 목록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계화하기를 위한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부정성 부사의 호응 범위를 살펴기 위해 연구에서는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하여 '영'의 호응 양상을 살폈는데 '-기 어렵다'와 공기한 용례가 추출되지 않아 호응 빈도 0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들어보면 '영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 큰 규모의 말뭉치 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쥘리엔치(2014)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극어를 연구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사전, 한중사전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부정극어 중에서 '통'과 '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이든 중국에서 출판한 교재이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사전의 설명도 역시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대본의 중국어 번역본을 검토하여 번역의 오류 양상을 살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극어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각 기존의 학습 자료나 번역 자료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논의들은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교

재나 사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서만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위계화 작업에서 먼저 세밀한 변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적 제안을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3. 사전 검토

이 장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 『동아새국어사전』(이하 『동아』), 『고려대한국어사전』(이하 『고려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 ‘통’과 ‘영’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사전에서의 제시 양상

	통	영
	1) 전혀, 도무지 관련어: 전혀/도무지 참고: 주로 ‘못하다/않다/없다’ 등과 함께 쓰임. 예문: ① 광천 시장에 가 봤지만 노인은 통 볼 수가 없었다. 『연세』 ② 저놈의 영감쟁이가 뱃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 거든.	1) 전혀, 도무지 참고: 흔히 ‘않다/없다’ 따위의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예문: ①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정림이는 모임에 영 나오지 못했다. ② 공부엔 영 취미가 없다.
	2) 온통, 전부 관련어: 온통 예문: ① 속옷 좀 갈아입으라고 그래도 통 뒤통스로만 듣더니, 꼴 좋수.	2) 아주, 완전히 예문: ① 담당자가 없는 통에 업무가 영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소.
『동아』	1) <주로 ‘않다’, ‘없다’, ‘못하다’ 따위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이어> 전혀, 도무지 예문: ① 그놈의 꿩이속을 통 알 수가 없다.	(주로 뒤에 부정하는 말이 따름) 도무지, 전혀 예문: ① 영 재미가 없어. ② 군것질을 했더니 영 입맛이 없다.
『고려대』	2) <온통>의 준말 (주로 ‘않다’, ‘못하다’, ‘있다’, ‘없다’, ‘모르다’ 따위와 함께 쓰여) 아무리 해도 예문: ① 요즘 들어 그녀가 통 안 보이던데?	1) (주로 ‘없다’,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과 함께 쓰여)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도무지. 예문: ① 음식에서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나는 영 먹을 수가 없었다.

	통	영
	② 그는 돈 벌 재간이라고는 통 없는 사람이다. ③ 성호는 그녀 생각 때문에 책의 내용이 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② 철수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영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2)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또는 아주 심하게. 예문: ① 우리 누나는 나하고는 영 반대이다. ② 그 사람 예전과는 영 판관이 되었다. ③ 오늘따라 기분이 영 엉망이다. ④ 고3인 나에게 이곳은 영 딴 세상처럼 느껴졌다.
『표준』	1) (주로 '않다', '못 하다', '없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거나 반문하는 문장에 쓰여) '전혀', '도무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문: ① 통 관심이 없다. ② 그는 통 말이 없다. ③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긍정의 뜻을 가진 문맥에서) '온통'이 뜻을 나타내는 말. 예문: 산이란 산은 샅샅이 통 뒤져 본 폭이다.	1) (주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전혀 또는 도무지. 예문: ① 영 가망이 없다. ② 영 맥을 못 추다. ③ 영 자신이 없다. 2) 아주 또는 대단히 예문: ① 기분이 영 고약하다. ② 사정이 영 다르다. ③ 영 판관이다.

먼저 의미 정보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연세』, 『동아』, 『표준』에서는 동일하게 유의어 '전혀, 도무지'와 '온통의 준말'이라고 설명하였고 『고려대』에서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사전에서 제시한 유의어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통'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0에 가까움과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는 4종의 사전에서 모두 '전혀, 도무지'로 제시하여 '통'과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아』를 제외하고 기타 3종의 사전에서는 '영'이 '아주, 완전히, 대단히'의 의미가 있다고 하여 '정도가 극에 달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결합 정보의 제시는 사전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또는 언급이 없다. '통'에 대해 『연세』와 『동아』에서는 '못하다, 않다, 없다' 따위, 『표준』에서는 '못 하다, 않다, 없다, 모르다' 따위, 『고려대』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못하다, 않다, 있다, 없다, 모르다' 따위와 함께 쓰인다고 하였다. 『고려대』를 제외한 기타 3종의 사전에서는 부정문에서의 결합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이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일 때 『연세』에서는 '않다, 없다' 따위, 『고려대』에서는 '않다, 없다, 못하다' 따위와 어울린다고 하였고 『동아』와 『표준』에서는 구체적인 부정소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인다고만 하여 결

합 정보를 다소 모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영'이 세 번째의 의미일 때에는 4종의 사전에서 모두 결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전의 예문을 보면 모두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어휘와 공기한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역시 결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사전의 결합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이고 정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말뭉치 용례를 바탕으로 실제 결합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문은 어휘의 쓰임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보로서 의미와 결합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의 예문을 보면 4종의 사전에서는 모두 결합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있다'와 공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문에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과 '있다'가 어떻게 결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표준』에서 반문하는 문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문에서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영'의 예문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동아』에서는 주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인다고 하였으나 '없다'와 공기한 예문을 두 개나 제시하고 다른 부정소와 결합한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4종의 사전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통'과 '영'은 유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서 그의 의미를 주로 유의어를 나열하여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전을 통해 의미 변별이 어려울 것이다.
- 둘째, 사전에서 제공한 결합 정보를 봤을 때 '통'과 '영'은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사전에서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사전을 통해 결합 특성 변별이 어려울 것이다.
- 셋째, 사전에서 제시한 예문은 '통'과 '영'의 변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서 결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문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사전의 예문을 통해 변별이 어려울 것이다.

이 장에서 검토한 4종의 사전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용 사전이 아니라 국어 사전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는 논의에서 사전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왕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사전 찾기'라는 활동을 진행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이해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 이는 고급 학습자에게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국제통용>에 따르면 '통'과 '영'은 중급 단계에서 배우는 어휘이므로 '사전 찾기'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제시한 유의어 '전혀, 도무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의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초·중급 학습자에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지 않으나 혹시 이런 활동을 진행해야만 한다면 교수자가 쉬운 말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 4. 말뭉치 용례 검토

이 장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구어 말뭉치>와 <일상대화 말뭉치>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친 각 약 1억 5,169만 2,203어절, 481만 969어절의 규모인 말뭉치에서 '통'과 '영'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통'의 용례가 총 3,082건이 추출되었으나 의존 명사로서의 '통', 명사로서의 '통(桶)'도 함께 검색되어 이를 삭제한 후 최종 399건의 용례를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총 11,217건이 추출된 '영'의 용례에서 한자어 '永'에서 유래돼 '영영'의 준말로 쓰이는 '영'과 숫자 '영'을 삭제하고 최종 1,012건을 선정하였다.

'통'과 '영'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구종남(2011, p. 558)에서는 부정극어는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말다', '아니다', '모르다', '없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명시적 부정 문맥과 '-기 싫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기 전에, 면, -느리/라기보다', 성분 부정, 수사의문문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명시적 부정 문맥에서 사용이 허가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시적 부정 문맥은 부정문을 말하는 것이고 비명시적 부정 문맥은 긍정문을 말한다. 배미연(2018)에서는 부정극어의 공기 양상 분석 틀을 크게 부정문과 긍정문, 그리고 부정문을 다시 통사적 부정문과 어휘적 부정문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배미연(2018)의 분류를 참조하고 기타의 실현 양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표 4. '통'과 '영'에 대한 분석 틀

부정문	통사적 부정문	안
		않다/-지 않다
		못
	어휘적 부정문	-지 못하다
		-지 말다
		모르다
긍정문	'-기 어렵다'류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수사의문문
	기타	발화 중단,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등

## 4.1. 부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표 5. 부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통사적 부정문				어휘적 부정문				합계
	안	않다/-지 않다	못	-지 못하다	-지 말다	모르다	없다	아니다	
통	140	33	84	12	-	24	91	-	384
영	99	175	33	2	-	5	70	101	485
합계	239	208	117	14	-	29	161	101	869
			578				291		

'표 5'에서 보았듯이 부정문에서 '통'과 '영'의 용례가 각 384건, 485건이 검토되어 '영'이 더 많이 실현되었다. '통'의 용례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호하는 부정소는 '안, 없다, 못, 않다/-지 않다, 모르다, -지 못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 말다', '아니다'와 공기한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영'의 용례에서는 '않다/-지 않다, 아니다, 안, 없다, 못, 모르다, -지 못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 말다'와 공기한 용례가 없었다. 이로써 이 두 부정극어는 선호하는 부정소가 대체로 다르지만 공통으로 '-지 말다'와 공기하기가 어렵고 '-지 못하다'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보통 사용 빈도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교체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1.1. 통사적 부정문

## 1) '안' 부정문

말뭉치 용례를 검토한 결과, '통'은 주로 '안과 '하다(40회), 오다(22회), 보이다(14회), 되다(12회), 먹다(6회), 듣다(6회), 나다(5회)' 등 어휘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며 '영'은 주로 '안과 '좋다(43회), 들다(20회), 되다(18회), 나다(13회), 맞다(9회), 하다(6회)' 등 어휘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다.<sup>7)</sup> 상위빈도수에서 공통으로 '하다, 되다, 나다'가 있다.

- (5) a. 인화는 울기만 하고 통 말을 안 해.  
 b. 왜 통 연락도 안 하세요?  
 c. 공부 이런 거 통 안 하시나 봐요.

7) '통'과 '영'의 사용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5회 이상 나타난 공기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6) a. 운동을 영 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b.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는 영 안 하네?

(5)의 '통'과 (6)의 '영'은 모두 목적어가 '말, 연락, 공부, 운동, 얘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교체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모두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0에 가까움'의 의미를 드러낸다. 다만 '통' 용례에서는 40회로 1위, '영' 용례에서는 6회로 6위를 차지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전혀 안 할 때 '통'을 더 즐겨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 되다'와 공기한 용례를 살펴보자.

- (7) 승희 씨 요새 어떻게 지내? 통 연락이 안 되네.  
 (8) 너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죽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란 말이야.

(7)의 '통'은 '연락'과 '안 되다'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어 연락을 해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의미를 드러냈고 (8)은 '영 안 되겠다'의 형식으로 일단 어떤 노력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면 협박하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안 되다'와 호응할 경우에는 모두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의 의미를 지닌다. 용례에서 본 것처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연락이 안 되다'에는 '통'을, '안 되겠다'에는 '영'을 더 자주 사용하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 직접 덩어리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자주 노출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 (9) 전날 뭘 했는지 통 기억이 안 난답니다.  
 (10) a.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영 안 나네요.  
 b. 날씨가 우중충한 게 진짜 초복 분위기가 영 안 납니다.

(9)와 (10)은 '안 나다'와 '통', '영'이 결합한 용례이다. (9)의 '통'과 (10a)의 '영'은 공통으로 '기억이 안 나다'와 공기한 용례이고 있어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b)처럼 '분위기가 안 나다'와 '영'이 공기한 용례가 검토되었지만 '통' 용례에서는 검토되지 않아 모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상위빈도수에서 '통'은 '오다, 보이다, 먹다, 듣다'와 공기한 양상을 발견하였다.

- (11) a.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요새 통 집에 놀러 안 오고!  
 b. 나도 안 잤어. 잠이 통 안 오네.  
 c. 사장님 계시네? 언제 귀국하셨어요? 통 안 보이시던데.

- d.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밥을 통 안 먹었어요.
- e. 내 말을 통 안 듣는다.

(11)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어느 장소에 전혀 오지 않을 때, 잠이 전혀 오지 않을 때,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을 때, 밥을 전혀 먹지 않을 때,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때 '통'을 자주 사용한다.

반면 '영'은 '안'과 '좋다, 듣다, 맞다'가 결합한 문장에서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2) a. 자네,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군.  
 b. 그 손주가 울며 할머니 부르니까 영 마음이 안 좋다!  
 c. 나는 무책임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영 안 좋더라구요.  
 d.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 욕을 되게 많이 했다.  
 e. 새로운 사장하고 영 안 맞나 봐요.  
 f. 처음으로 먹어보는 음식 때문인지 영 입에 안 맞아요.

(12a-c)의 '영'은 '안 좋다'에 '컨디션, 마음, 기분'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어 건강이나 심리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2d)의 '영 마음에 안 듣다'는 20회로 나타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있어서 이미 굳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2e)에서는 새로운 사장과 성격이나 생각 등에 있어서 매우 안 맞는 것을 '영 안 맞다'로 표현하였고, (12f)에서는 음식이 입에 매우 안 맞는 것을 '영 입에 안 맞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의 '영'은 '정도가 극에 달한' 의미를 나타낸다.

2) '않다/-지 않다' 부정문

'않다/-지 않다' 부정문에서 '통'은 33건, '영'은 175건의 용례가 추출되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영 -않다/지 않다'의 형식을 더 즐겨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은 주로 '않다 /-지 않다'와 '보이다(5회), 웃다(2회), 나다(2회), 먹다(2회)' 등의 어휘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고 '영'은 주로 '내키다(11회), 시원하다(9회), 듣다(8회), 좋다(7회)' 등의 어휘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다.

- (13) a. 요새 통 보이지 않는데 어디 유람이라도 간 것이요?  
 b. 수석님이 통 웃지 않으셔서 속상해요.  
 c. 통 기억이 나지 않아요.

(13)에서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안' 부정문에서 공기한 어휘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13a)는 요즘 청자를 전혀 못 봤다는 것을, (13b)는 전혀 웃지 않는다는 것을, (13c)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여 '통'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0에 가까운' 의미를 드러낸다.

- (14) a.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영 내키지 않다.  
 b.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c. 범문이라도 좀 들어 볼까 싶어서 물었는데 이 스님의 대답이 영 맘에 들지 않아요.  
 d. 자네를 이렇게 보내서 내 마음이 영 좋지가 않다.

(14)는 '영'이 '않다/-지 않다' 부정문에서 나타난 일부의 용례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내키지 않다', '시원치 않다', '맘에 들지 않다', '좋지 않다'에 '영'을 즐겨 사용하여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빈번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굳어진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덩어리의 형식으로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 3) '못' 부정문

'못' 부정문에서 '통'은 주로 '못'과 '자다/주무시다(15회/3회), 먹다/드시다(10회/7회), 보다(8회), 알아듣다(6회) 등 어휘를 결합한 문장, '영'은 주로 '못'과 '민다(5회), '추다(4회)' 등의 어휘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다.

- (15) a. 당신 요즘 통 잠도 못 자고 고민하잖아!  
 b. 외숙모가 요새 통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요.  
 c. 입맛이 없어서 어쩌니. 통 못 먹던데.  
 d. 요즘 통 못 드시는 것 같아 찬을 이것저것 올렸습니다.  
 e. 예전에는 잘도 웃고 그러던 놈이 요즘은 웃는 꼴을 통 못 보네.  
 f.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못 알아듣겠네.

(15a-b)의 '통'은 잠을 자려고 해도 고민 또는 어떠한 이유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15c-d)의 '통'은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거나 아파서 못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5e)의 '통'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15f)의 '통'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통'은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을 뜻한다.

- (16) a. 난 신소영이나 저놈이나 영 못 믿겠다.  
 b. 걸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영 맥을 못 주고 있어.

(16a)의 '영'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은 것을 나타내고, (16b)의 '영'은 걸과 다르게 기운이나 힘을 아주 못 쓰는 것을 나타내어 '못' 부정문에서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4) '-지 못하다' 부정문

'-지 못하다' 부정문에서 '통'과 '영'은 각 12회, 2회로 다른 부정문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낮다. '통'은 주로 '보다(3회), 자다(2회), 알아듣다(2회)' 등의 어휘와 '-지 못하다'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고 '영'은 '민다(1회), 발휘하다(1)'와 '-지 못하다'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다.

- (17) a. 이견우 씨가 일본어를 쓰는 걸 제가 통 보지 못했어요.  
 b. 요 며칠, 네가 책을 읽어 주지 않아서 통 잠을 자지 못했어.  
 c. 전 통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17a)는 일본어를 쓰는 것을 보려고 해도 못 봤음을, (17b)는 책을 읽어 주지 않아서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잔 것을, (17c)는 말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용례들의 '통'은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의 의미를 나타낸다.

- (18) a. 영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죠.  
 b. 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다

(18a)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은 것을 나타내고 (18b)는 역량의 발휘를 아주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용례들의 '영'은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4.1.2. 어휘적 부정문

1) '모르다' 부정문

'모르다' 부정문을 살펴보면 '통'은 24회, '영'은 5회로 '통'을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면 일부의 문장에서 교체할 수 있다.

- (19) a. 저도 무슨 속셈인지 통 모르겠어요.  
 b. 대체 뭔 소리인지 통 모르겠구나.  
 c. 요즘 자주 나가네. 통 외출할 줄 모르더니만?

- (20) a. 전 두 분이 영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b. 애가 사회생활을 영 모르네.  
 c.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영 모르겠어.

(19b)와 (20a)는 모두 누군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통'과 '영'이 서로 교체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기타의 것을 보면 (19a)는 남의 속셈을 전혀 모르겠다는 것을, (19c)는 평소에는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b)는 사회생활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20c)는 '-지 모르다'의 형식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없다' 부정문

'통'과 '영'의 용례는 '없다' 부정문에서 각 91건, 70건이 추출되었는데 이를 '-이/가 없다'와 '-르 수 없다'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이/가 없다' 부정문에서 각 67건, 68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르 수 없다' 부정문에서는 각 24회, 2회로 나타나 '통'의 용례가 더 많다.

먼저 '통'은 주로 명사 '입맛(13회), 소식(9회), 관심(7회), 연락(7회), 말(5회)'이 '-이/가 없다'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고 '영'은 주로 명사 '관심(5회), 맛(4), 자신(감)(4회), 소질(4회), 입맛(4회)'과 '-이/가 없다'와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어 공통으로 '입맛'과 '관심'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1) a. 칠남이 그 친구가 봄을 타는지 통 입맛이 없단다.  
 b. 요즘 영 입맛이 없네요.  
 (22) a. 우리 딸? 여기저기서 선은 많이 들어오는 데 통 관심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다.  
 b. 나는 정치에 영 관심이 없다.

(21)의 '통'과 '영'은 입맛이 전혀 없음을 나타냈고 (22)의 '통'과 '영'은 관심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 서로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 (23) a. 안 그래도 통 소식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들 궁금해해.  
 b. 요즘은 살기가 많이 어려운지 통 연락이 없어서 많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c. 수진이는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통 말이 없어.

(23)은 '통'의 용례인데 (23a)는 친구들이 근황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을, (23b)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한 이유는 어떠한 연락이 없다는 것을, (23c)는 이혼

소송의 결과를 궁금해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통'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0에 가까움'을 뜻한다.

- (24) a. 기숙사 아침밥이 영 맛이 없다고 톡을 보냈네요.
- b. 근데 해결할 자신이 영 없다.
- c. 우리 누나가 그 방면으로 영 소질이 없어서요.

(24)는 '영'의 용례이다. (24a)는 기숙사의 아침밥이 아주 맛이 없다는 것을, (24b)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이 전혀 없다는 것을, (24c)에서는 누나가 소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영'은 '정도가 극에 달함'을 뜻한다.

'-르 수 없다' 부정문에서 '통'은 주로 '보다(7회), 자다(3회), 알다(3회)'와 '-르 수 없다'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고 '영'은 총 2회로 '개운하다, 알아보다'와 '-르 수 없다'를 결합한 문장에서 실현되었다.

- (25) a. 이럴 때 아니면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 b. 밤이 되면 통 잠을 잘 수가 없네요.
- c. 나 지금 네 속을 통 알 수가 없다.
- (26) a. 내용은 좋는데 글씨가 영 알아볼 수 없다.
- b.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얼굴을 몰라서 영 개운해질 수가 없다.

(25)의 '통'과 (26)의 '영'은 모두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의 의미를 드러낸다. 예컨대 (25c)는 청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뜻이고 (26a)는 내용은 좋지만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읽어보려고 해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음을 뜻한다.

### 3) '아니다' 부정문

'아니다' 부정문에서 '통'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영' 용례는 101건으로 나타나 '영'은 '아니다'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이/가'가 붙는 경우와(23회) 없는 경우를(78회) 발견하였다.

- (27) a. 우리 사돈어른 요즘 피부 상태가 영 말이 아니시니까 우리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해드려.
- b. 이건 영 제 취향이 아니네요.
- c. 반응이 영 아니다.
- d. 오늘만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둔다 정말?



(27a)과 (27b)의 '영'은 '-이/가 아니다'와 공기하여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냈고 (27c)의 '영'은 '아니다'와 직접 결합하여 역시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리고 (27d)는 일단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면 포기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의 '영'은 '노력을 해봤지만 기대에 못 미침'의 의미를 드러낸다. '통' 용례에서 이상의 양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통'과 '아니다'는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4.2.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표 6.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기 어렵다'류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수사의문문	합계
통	2	-	3	5	10
영	2	3	478	-	483
합계	4	3	481	5	493

긍정문에서 '통'과 '영'의 용례는 각 10건, 483건이 추출되어 '통'보다는 '영'이 긍정문에서 더 잘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과는 어울리지만 '영'과 어울리지 않는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요소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기 어렵다'류,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수사의문문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4.2.1. '-기 어렵다'류

- (28) a. 뭐가 그리 분주하신지 요즘 통 뱃기가 어렵습니다.  
 b. 집 밖으로는 통 나오기가 싫지?
- (29) a. 영 이해하기 어렵다.  
 b. 영 먹기 싫다.

(28)과 (29)에서 보듯이 '통'과 '영'이 '-기 어렵다', '-기 싫다'와 공기한다. (28a)의 '통'은 '보기 어렵다'의 정도를 높여주었고 (28b)의 '통'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오기 싫다'의 정도를 높여주었다. (29)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떠한 음식을 아주 '먹기 싫은' 것을 '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말뭉치 용례에서 각 2건,

총 4건이 검토되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나중에 가르칠 수 있다.

4.2.2.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부정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는 ‘부/불(不)-, 비(非)-, 미(未)-, 무(无)-, 몰(沒)-’ 등과 결합한 어휘를 말한다. 이런 부류의 어휘와 공기한 것은 ‘영’ 용례에서만 검토되었다.

- (30) a. 노선이 영 불분명하다
- b.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죠?
- c. 사업에 영 무재주다 싶으면 일찌감치 손 털고 나오기가 하든가.

(30a)와 (30b)는 ‘불-’과 공기한 용례이고 (30c)는 ‘무-’와 공기한 용례이다. 하지만 말뭉치 자료에서 3회밖에 나타나지 않아 역시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2.3.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긍정문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와 공기하여 사용한 경우를 발견하였는데 ‘통’은 (31)에서 본 것처럼 총 3건으로 ‘어둡다’, ‘굵다’, ‘답답하다’와 공기한 용례만 검토되었다.

- (31) a. 요새 예비한테 뭐 일이 있소? 통 안색이 어둡소.
- b. 어제도 자서놓고 뭐 맥주여? 드시지 마요. 통 굵었어?
- c. 이유를 모르는 엄마는 통 답답할 뿐입니다.

반면 ‘영’ 용례는 478건으로 나타나 전체 1위를 차지해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결합 정보이다.

- (32) a. 듣던 거랑 영 달라. 난 이 집 큰 며느리 좀 세다고 들었는데?
- b. 너 요즘 기운도 없고 영 이상하다 싶었어.
- c. 계속해야 하는 걸까? 영 기분이 그렇다.
- d. 나 때문인가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하구나.
- e. 영 찻잔 얼굴로 일어나 책상에 앉는다.
- f.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른손 다친 게 영 맘에 걸린다.
- g. 어른 앞에서 똑똑한 척 해대는 소리하며 생긴 것하고는 영 판판이더라고요.
- h. 영 기분이 찻잔하네요.
- i. 표정이 영 못마땅한가 보군요.

- j. 그때 악랄한 기사 때문에 우리 회장님 충격 받아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렇게 또 마주치면 제 기분이 영 별로잖아요.

긍정문에서 '영'은 다르다(34회), 이상하다(31회), 그렇다(28회), 불편하다(20회), 찝찝하다(20회), 걸리다(19회), 만반이다(18회), 찝찝하다(14회), 못마땅하다(14회), 별로(다)(13회) 등의 순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와 공기하였다. (32)는 모두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4.2.4. 수사의문문

말뭉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이 수사의문문에서 실현되는 용례를 발견하였다.

- (33) a. 통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b. 통 만나봤어야지.  
 c. 통 시간이 나야 말이지.  
 d. 통 말을 들어 먹어야지.  
 e. 통 연락이 되야 말이죠.

(33)의 용례는 모두 '-지'와 공기하여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말뭉치 용례 검토에서 '통'과만 공기하였고 '영'의 용례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기중(1989)에서 제시한 예문 (1b)와 다르다. 말뭉치 용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을 사용하면 비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통'과 더 잘 어울리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과 '-어야지(요), -어야 말이지(요)'가 결합한 문장을 만들어서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다.

### 4.3. 기타

#### 4.3.1. 발화 중단

어떤 용례는 부정문에서 실현된 것인지 긍정문에서 실현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데 이는 화자가 발화할 때 끝까지 하지 않고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통'은 5건, '영'은 29건으로 검토되었는데 체면위협이론에 입각하면 화자가 최대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모습이 보인다.

- (34)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35) a. 애라 씨 그림 실력이 영..  
 b. 혼자 있을 땐 캡 잘해, 죽여! 그런데 오디션 볼 땐 영..

(34)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통'에서 그쳐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주저함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체면을 최대한 적게 손상하였다. (35a)과 (35b)도 청자의 실력에 대해 '너무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에서 끝났다. 여기에서 '통'과 '영'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발화하다 보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뱉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뱉는 순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반응하여 후회할 수 있는데 끝까지 발화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화자의 체면을 이미 손상한 상태에서 더 이상 손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 4.3.2.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

부정극어는 부정적 문맥에서만 공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영'의 용례에서 (36)에서 본 것처럼 '반갑다, 훌륭하다, 능통하다, 재미있다, 감동이다, 잘되다, 잘하다, 영광이다' 등의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와 공기한 것을 발견하였다.

- (36) a. 듣던 중 영 반가운 소리다!  
 b. 영 훌륭한 영부인이라 그랬나.  
 c. 또 거기에 뭐 워낙 영어에 영 능통하니까.  
 e. 발음을 영 잘하세요.  
 d. 저도 책으로 봤는데 영 감동이에요.  
 f. 배우자나 부모 영 영광이잖아요.

(36a-c)는 형용사와 공기, (36e)는 동사와 공기, (36d-f)는 '명사+이다'와 공기한 용례이다. 이처럼 긍정문에서 '영'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어휘와 공기하여 '정도가 극에 달함'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15건만 추출되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아직은 긍정적 문맥에서 사용하는 것이 관습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본다.<sup>8)</sup> 따라서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더 많이는 부정적 문맥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8) 심지어 한국어 모어 화자 연구자인 이수현(2003, p. 29)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영 깨끗하다', '영 잘한다' 등은 어색한 표현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36)에서 제시한 용례는 비문에 가깝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용례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어휘와 공기하는 양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꼭 어색하다고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빈도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적 의미와 공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굳이 학습자에게 연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쓰임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통'과 '영'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펼쳤다. 먼저 첫 번째의 연구 문제, 즉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어학 관점에서 다룬 논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통'과 '영'을 변별하였고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논의는 학습용 부정극어를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와 사전, 그리고 중국어 번역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 문제, 즉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전적 의미를 유의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고 결합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예문이 결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세 번째의 연구 문제인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방대한 말뭉치 자료에서 '통'과 '영'의 용례를 추출하여 부정문, 긍정문,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의 사용 빈도수가 더 높았고 제약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은 긍정문에서보다 부정문에서 더 많이 사용되며 '영'은 부정문과 긍정문에서 비슷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 제안도 함께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통'과 '영'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부정극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 방대한 말뭉치 자료를 검토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변별을 시도했다는 점, 한국어 교육적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 조사를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수업 모형이나 지도 교수안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험 조사를 통한 교육 방안 제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구종남. (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5-27.
- 구종남. (2011).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 *韓民族語文學*, 59, 549-584.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두산 동아 사서편집국. (2007).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배미연. (2018).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 실현 양상 연구. *洋橋語文研究*, 49, 195-224.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adic>

- 유옥순. (2004).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의미 특성에 대하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종. (1989). 국어 부정구문에 관한 연구-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15, 163-197.
- 이수현. (2003). 국어 부정 극어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아. (2012) 부정성 부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유종. (2005). 부정소 호응 부사에 의한 연어와 사전 기술. *한국언어문화*, 27(0), 235-256.
- 임유종. (2007).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양상과 한국어 교육. *한민족문화연구*, 20(20), 187-214.
- 짙리엔치. (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 부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설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화: (02)760-0231  
이메일: 752151414@qq.com

Received on August 11,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October 4, 2022

Accepted on October 4, 2022